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국가없는사회주의: 아나키즘

미하일바쿠닌

미하일바쿠닌
국가없는사회주의: 아나키즘

G.P. 막시모프, 『바쿠닌의정치철학』 (1953 년, 뉴욕, The Free Press) 에서
부터.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프랑스대혁명에의해선포된대원리의효과	3
사회주의는정의正義다	3
사회주의의기본원리	4
국가사회주의는거부된다	4
상속법의철폐	5
사회주의선언	5
정치권력의자리에생산담당자의조직을	6
인민의이상	6
자유사회의강령	7
혁명기간에합당한전술	8
법령뿐인혁명은실패하고야만다	8
폐지된국가의뒤를이을자유조직	9
자유는평등과함께가야한다	9
권위주의적혁명과자주적혁명의차이점	10
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방법	10

시간동안스스로를통치하도록허용해왔고, 그불행의근원은이것이나정부의다
른형태에있는것이아니라정부의원칙과존재, 그본질에있다고믿는다.

독일인들이발전시켰고미국과영국의사회주의자들에의해부분적으로수용
된과학적공산주의와라틴국가의프롤레타리아트가광범위하게발전시켜궁극적
인결론에까지이르렀으며, 오늘날까지도받아들여지고있는프루동주의사이에
현재존재하는것은역사적으로도확인된바있는견해상의이러한차이다. 혁명적
사회주의는찬란하고도실천적인모습을파리코뮌에서최초로드러낸바있다.

범독일인들의깃발에는다음과같이적혀있다. 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국가를
유지하고강화시켜라. 반대로우리의깃발, 사회혁명가의깃발에는핏빛찬연한글
씨로이처럼적혀있다. 모든국가의파괴, 부르주아문명의일소, 억누를수없는백
성과해방된모든인류의조직인자유결사를통해아래로부터자생적으로건설되는
자유조직, 그리고보편적신인간세계의창조.

이러한새로운조직을창조하기전에, 혹은오히려인민들이새로운조직을창조
하도록돕기에앞서, 반드시승리를쟁취해야한다. 원하는세상을창조하기위해서
는국가를타도해야만한다….

권위주의적혁명과자주적혁명의차이점

사회주의적혹은혁명적집산주의자가권위주의적공산주의자, 국가의절대적주도권에대한지지자와주요하게갈리는점은다음과같다. 둘의목표는동일하다. 두세력은만인에게평등한경제적조건하에서, 즉생산도구의집단적소유하에서오로지집단노동을기반으로한새로운사회질서를창조하길원한다.

다만공산주의자들은부르주아급진세력의도움을받아노동계급, 주로도시프롤레타리아트의정치권력을발전시키고조직화하는것을통해쟁취할수있다고생각한다. 반면, 일체의모호한동맹을적대시하는혁명적사회주의자들은대조적으로이러한공동의목표는정치를통해서가아니라, 비록상류계급으로태어났지만자기의지에따라과거와단절하고공공연히프롤레타리아트편에가담하여그강령을수용한사람들을포함하여, 도시와촌락노동대중의사회(따라서반정치적인)조직과권력을통해서쟁취할수있다고믿고있다.

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방법

이로부터두가지서로다른방법이도출된다. 공산주의자는국가의정치권력을빼앗기 위해서는노동자의물리력을조직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혁명적사회주의자는국가를파괴하려는, 더정확히표현하자면국가를청산해버리려는의도로조직화한다. 공산주의자는권위의원리와그에따른실천을옹호하는반면, 혁명적사회주의자는자유로운신념만을간직한다. 이들은똑같이과학을옹호하는이들인데, 과학은미신을파괴하고신앙을대체하는것이다. 하지만공산주의자는과학을인민에게강요하고싶어한다. 반면혁명적집산주의자는인민들에게과학과지식을확산시켜서그결과로인간사회의여러그룹들이자신감을갖게되어, 소수‘잘난’사람이무지몽매한대중에게강요하기위하여미리준비된계획이아니라자신들의자연스런경향과실질적이해관계에따라조직하거나자생적으로연합으로결합될수있도록노력한다.

혁명적사회주의자는학식있는박사나자칭인류의스승이라는자들의심오한생각보다는인민대중의본능적열정과실질적육구속에훨씬더많은실천적이성과지성이존재한다고믿는다. 그자들은인류를행복하게만들겠다는무수한시도가이미하나같이실패로돌아간비참한경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 똑같은짓을되풀이하려한다. 그러나, 혁명적사회주의자들은반대로인류는오랫동안, 너무오랜

프랑스대혁명에의해선포된대원리의효과

프랑스혁명이대중에게그복음, 즉신비적이지않고합리적이며, 내세가아니라현세의, 하늘의복음이라기보다는인간의복음, 다시말해인권의복음을헌사할당시부터, 혁명이모든사람은평등하며모든사람에게는자유와평등이주어져있다고선언한이래로, 그리스도교라는아편에마비되면서부터빠져들었던굴종상태의잠으로부터서서히깨어나고있는전유럽국가의대중들그리고모든문명세계의대중들은그들역시도평등, 자유그리고인간의권리를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자문하기시작했다.

이러한질문이제기되자마자본능만이아니라탄복하리만치건강한의식에의해인도되는인민들은자신들의실질적인해방혹은인간화의첫번째조건이무엇보다도경제상황의근본적변혁에있다는것을깨달았다. 일용할빵의문제는당연하게도그들에게제일가는문제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지적한것처럼사람은사고하고, 자유로움을느끼며, 사람노릇하기위해서는일상생활의물질적걱정으로부터자유로워져야하기때문이다. 그점에관해서부르주아들은그문제를아주잘알고있으면서도인민의유물론적요구에반대한다고그토록소란스럽게소리질러대며관념론에따른금욕을인민에게설교하고있는데, 왜냐하면말만늘어놓았지실천할수는없기때문이다.

인민들에게부각되는두번째문제, 즉노동후의여가는인간생존의필수적조건이다. 그러나현사회의급진적인변화외에는결코빵과여가를쟁취할수없는데, 이는프랑스대혁명이그자체의원리가가지는함축에의해사회주의를탄생시킨이유를설명해준다.

사회주의는정의正義다

...사회주의는정의다. 우리가정의에관해언급할때이는나폴레옹법전이나로마법에담겨있는정의를말하는것이아니다. 이것들은완력으로밀어붙이는폭력, 그리스도교교회나이교도교회에서행하는기도에의해신성시되는폭력이라는엄청난범죄에기초하고있으며, 절대원리처럼떠날어져그로부터논리적추론과정을통해모든법률이유추되는그런정의이다. 우리는그런정의가아니라오로지인간양심에기초한정의, 모든사람의의식심지어어린이의의식에서조차발견되는그런정의를말하는것으로, 이를‘공정 equity’이라는한단어로표현할수있을것이다.

무력에의한정복과종교적영향력때문에정치나법리, 경제분야에아직승리하지못한이보편적정의는새로운세계의초석이되어야만한다. 그것없이자유도, 공화국도, 번영도평화도있을수없다. 그후에그것은우리가평화정착을위해효과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우리들의의지를장악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정의는끔찍하게학대받은사람들의이익을옹호하고, 정치적자유와함께경제적, 사회적해방을요구하도록촉구한다.

사회주의의기본원리

우리는여기서, 여러분에게이러저러한사회주의체계를제안하려는것이아니다. 지금우리가요구하는것은프랑스대혁명의위대한원칙에대한새로운선언이다. 모든인간은모든인간성을발전시킬물질적, 도덕적수단을가져야한다는이아기이다. 우리가생각하기에그원칙은다음과같은문제로번역되어야할것이다.

남녀를불문하고모든개인이삶속에서자신의다양한능력을발전시키고일에있어동등하게활용할수단을찾아야하는방식으로사회를조직하는것. 그리고그런사회를조직하는것은누구의노동도착취불가능하게하며모든개인이사회적부유를향유할수있도록할것이다. 사회적부는오직집산적인 collective 노동에의해서만생산되기때문이다. 그러나그부의생산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한에서만향유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국가사회주의는거부된다

이임무를수행하는데는물론수세기에걸친발전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역사는이미그임무를제시했으며, 앞으로도우리는우리스스로가극도로무능력하다고자학하지않는한그것을무시할수없다. 우리는여기에개인과조직의완전한자유를용인하지않으려는사회조직, 혹은어떠한통제권력일지라도, 그것을필요로하는사회조직을피하려는일체의시도를단호하게거부한다는점을긴급히추가하고자한다. 우리는조직, 경제, 정치의유일한기반이자유일한창조적원리로서인식하고있는자유라는이름으로, 국가공산주의혹은국가사회주의를조금이라도닭은모든것에대해서도맞서야만한다.

제력을기반으로한이념은조직체계다. 국가의몰락에는사법권의부정과국가송배자의갓가지기만을파괴하는과정이사반될것인데, 사법권과그송배자들은언제나국가가대표하고보증하며인정한모든폭력을, 현실에서뿐아니라관념에서도불만을있을지라도신성시해왔을따름이다.

국가가사라질때에이르러서만인류가자유를쟁취하고, 사회, 그룹, 지역조직의이익과모든개인들의참된이해관계가실질적으로충족될것이라는것은명백하다.

폐지된국가의뒤를이을자유조직

국가와교회의폐지는사회의진정한해방을위한가장시급하고도불가결한조건임에틀림없다. 사회는그이후에야재조직화에착수할수있고, 또그렇게해야만한다. 하지만재조직화는위로부터진행되거나, 소수의현자및똑똑한사람이구상한이상적계획에따라실행되어서는안되며, 일부독재권력혹은설령보통선거로선출된국민의회일지라도이들이제출한법령을통해이루어져서도안된다. 앞서언급했던그런체계는불가피하게정부관료귀족, 즉인민대중과는아무런공통의이해관계를갖지않는한부류의사람들을만들게되는데, 확언하건대이게급은공공복리나국가를구한다는허울아래다시대중을착취하고노예처럼부려먹게될것이다.

자유는평등과함께가야한다

나는경제적, 사회적평등에대해확신한다. 왜냐하면이러한평등없이자유, 정의, 인간의존엄성, 도덕성, 그리고개인의안녕은물론국가의번영도모두거짓이라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나는동시에인류애의제 1 의조건인자유의옹호자이기때문에, 평등이결코국가의초월적감독행위를통해서가아니라, 노동과집산적인자생적조직에의해코원으로, 그리고코원의자유로운연합으로확대될생산지협회라는자유조직에의해확립되어야한다고확신한다.

혁명기간에합당한전술

사회혁명기간에, 사회혁명은모든측면에서정치혁명과정반대되는데, 개인의행동은거의중요하지않은반면, 대중의자발적행동이결정적중요성을가진다. 개인이할수있는일은대중의본능에상응하는생각을명확히하고, 선전하며, 실행하는것그리고이에더하여대중의자연스런힘인혁명적조직에끊임없는노력을보태는것이다. 그외에는아무것도할수없으며, 나머지는인민스스로가할수있으며, 해야만한다. 이와는다른어떤방법이라도정치적독재로귀결되고, 국가가재출현하여국가의압제, 불평등과특권이부활될것이다. 즉, 그것은대중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노예제도의재확립을위한우회적이지만논리적인방법으로이어질것이다.

모든성실한사회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바아랭 (Varlin) 과그의친구들은모두인민들에게서태어나고자란모든노동자들처럼, 고립된개인들의주도권과탁월한개인들에의한지배그리고무엇보다도이러한지배가철두철미하게관철되어 똑같은선입견과불신을자기사람들에게까지전파시키는것에반대하는너무나도정당한성향을수준높게공유하고있었다.

법령뿐인혁명은실패하고야만다

사회혁명이독재혹은헌법의회를통해발효되거나조직될수있다는, 내가보기엔정말사악한권위주의적공산주의사상과는대조적으로, 우리의친구파리의사회혁명-사회주의자들은인민들의그룹이나결사의자생적이며지속적인대중행동을통해서만혁명이가능하며, 완전하게발전할수있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다.

우리의파리친구들은그야말로정당했다. 사실그럴의도가없기때문에, 설혹제아무리천재적재능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 혹은탁월한수백명의집단적독재를입에올릴수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인민의집단의지를구성하는무한정다양하며이질적인실질적해관계, 열정, 의지, 욕구를포용할수있는지식인조합은존재하지않는다. 이모든것을만족시킬수있는사회조직을고안할수있는지성은없다.

그러한조직은얼마간국가의사주를받은폭력으로늘사회를불행으로몰고가는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가될것이다. 그러나사회혁명이대중, 그룹, 코뮌, 협회그리고심지어개인까지도완전한자유를누리게함으로써, 그리고국가의실체인폭력일체의역사적근거를단호하게파괴함으로써끝장을내야만하는것은바로강

상속법의철폐

국가가할수있고, 또해야만하는유일한일은우선상속법을조금씩수정해가능한한빨리완전히폐지에이르게하는것이다. 그법은순전히국가의창조물이며권위주의적이고신성한국가가존재하는조건중의하나인바, 국가에서의자유에의해폐지될수있으며폐지되어야한다. 다시말해, 국가는정의의원리에따라자유롭게조직된사회로해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상속권이철폐되어야한다는우리의주장은, 그것이존재하는한개인의자연적불평등이아니라계급의인위적인인간불평등인세습되는경제적불평등이존재할것이고, 후자는심성을계발하고형성하는데있어항상적으로세습적불평등을낳아, 계속해서모든정치적, 사회적불평등의원천이자정수가되고있기때문이다. 정의의임무는만인을위한평등을확립하는것인데, 평등은만인이소망하는삶에필요불가결한것이고경제적, 정치적조직사회에의존하는것인즉, 모든사람은그스스로의본성에인도되어자기노력의결과물이될것이기때문이다. 죽은사람의재산은남녀어린이의수련과교육을위한사회기금으로돌려져서, 그들이태어날때부터성년이될때까지의양육비까지뒷받침해야한다고우리는여긴다. 우리의기본적인사회구상은슬라브인과러시아인처럼동시대인의일반적이며전통적인본능에근거하여모든사람의재산을존속시키는것이되, 그재산은직접경작하는사람에의해서만소유되어야한다는점을덧붙이고자한다.

우리는여러분에게이원리는정당하며, 모든심각한사회개혁의필수적이고불가피한조건이며, 비록프랑스와같이경작은자신들이하지만현재횡행하고있는정치, 경제체계의피할수없는결과로서초래되는토지의처분으로인해, 농민대다수가결국아무것도소유하지못하게되고마는그런토지를소유하고있는나라들에서는그원리의실현이어려울지라도, 결과적으로서유럽도이원리를인식하고수용하는데실패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확신시키고자한다. 그러나토지문제에관한더이상의제안은삼가기로하겠다. 다만, 지금다음과같은선언을제안하는것으로만족하고자한다.

사회주의선언

“지금전세계가자랑스레여기는모든재화를생산하고서도그대가로단지조그만빵조각밖에받지못해내일의생계를장담하기어려운인구대다수가, 사실상법에의해서가아니라휴식도여가도없는노동, 그리고가난때문에기본적욕구를박

탈당하고있는한그리고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불품없는 노예상태로운명지어져있는한자유, 정의, 평화의엄중한실현은불가능할것이라고확신한다.”

“수세기동안끔찍하게학대를받아온사람들에게병의문제는정신적인해방의 문제이고, 자유와인간성의문제라고확신한다.”

“사회주의없는자유는특권과불의의不義이며, 자유없는사회주의는노예제이자야만일뿐이라고확신한다.”

“평화와자유를위한연맹은자본과사유재산소유자의속박으로부터인민의노동을해방시킬것을목표로하는사회경제의급진적재건, 법률적정의나신학적, 형이상학적정의가아닌인간정의에다름아닌엄격한정의그리고실증과학과광대한자유에근거하는재건의급진적필요성을소리높여선포한다.”

정치권력의자리에생산담당자의조직을

원리상으로나실제상으로도정치권력이라부르는것을완전히철폐할필요가 있는데, 이는그것이존재하는한지배자와피지배자, 주인과노예, 착취자와피착취자가존재할것이기때문이다. 정치권력이일단철폐된다면생산력조직과경제체제조직으로대체되어야한다.

근대국가의비약적인발전에도불구하고 — 그발전의궁극적인단계에서국가를논리적으로부조리하게만드는발전 — 국가와국가원리의시대가얼마남지않았음이명백해지고있다. 이미우리는역경을뒀고선대중의경제적연대에의해형성된자유사회조직이정부의간섭으로부터벗어나완전한해방을향해다가가고있으며, 낡은국가의모든국경선과민족차별이철폐되고있고, 사회의이질성에도불구하고한가지공통관심사를가지는데, 그토대로서생산적노동, 인간화된노동을취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인민의이상

물론인민들에게는이러한이상이무엇보다도우선집단노동을통하여만인에게균등하고의무적인방식으로결핍을충족시키고, 소유를소멸시키며, 모든물질

적욕구를완전히만족시키는것을의미한다. 그러고나서지배의종식이자, 인민들이자신들의욕구와부합하는삶을국가에서보이는하향식이아니라아래로부터자유롭게조직화하는것을표현하는것으로서, 인민들스스로일체의정부및의회와는무관한조직 — 농촌과공장노동자들, 나아가코뮌, 지역그리고전국적수준의조합, 마침내미래에는국가가모두무너져내린폐허위에찬란하게빛나는월보편적인류보편적인형제애의조합을결성하는것을의미한다.

자유사회의강령

공화정의국가형태인마치니 Mazzinian 체제바깥에는코뮌의공화정, 연합의공화정, 사회주의적이며참다운인민의공화정이나키즘체제만이존재할뿐이다. 그것은국가의폐지를목표로하는사회혁명의정치이며, 경제, 인민의총체적자유조직, 즉연맹을통해아래로부터조직되는조직이다.

...이조직은단순히인민에의한행정으로변화할것이기때문에정치권력이존재할가능성은없다.

우리의강령은몇마디말로요약할수있다.

평화, 해방, 그리고억압받는사람들의행복.

모든압제자와약탈자에대한전쟁.

노동자에게로의전면반환 — 모든자본, 공장, 노동도구, 노동과원자재는조합에게로, 토지는자기손으로경작하는사람들에게로.

자유, 정의그리고지구상모든인간에대한우애.

만인을위한평등.

그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사람에게게발, 교육, 양육의수단과노동하며평등하게살아갈가능성.

농업과공업, 문학과과학등에있는노동자협회의자유로운연합을통해아래로부터사회를조직하는것 — 처음에는코뮌으로, 그리고코뮌연방에서지역으로, 지역은전국으로, 각나라들은국제적우애협회로.